

# 새싹 편지

2011. 3월호



## Woosong News

- 2011학년도 입학식
- 새내기 콘테스트 예선
- 2학년 유아문학수업
- 형님반이 된 기분

## Our Story

- 유아교육과 대면식
- 선배님 궁금해요



### 2011학년도 입학식



2011년 3월 2일 우송 예술 회관에서 우송대학교 2011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고 유아교육과는 보건복지부대학, 호텔외식조리대학, 글로벌 리더쉽 자율전공과 함께 2부에 입학식이 치러졌습니다. 학생 모두가 설렘과 걱정을 가지고 진행된 입학식은 존 엔디컷 총장님의 축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우송대학교란 말답게 해외 자매대학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고 각 국의 학생대표들과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학생모두가 교가 제창을 하면서 비로소 우송대에 입학한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알고, 앞으로 4년을 함께 하게 될 우송대학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4년 동안 우송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사실과 앞으로 있을 대학생활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에 매우 설레는 자리였습니다. 입학식을 빌어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학업에 열중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새내기 콘테스트 예선



2011년 새내기 콘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새내기들만의 특전이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사이보이 등 총 3곡을 연습하였습니다. 처음 대학을 들어와서 겪는 큰 행사라서 부담도 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시간에 빈 강의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상의하고 연습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처음인 만큼 의욕이 넘치는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하는 것이 나태해 졌다는 느낌도 받고, 준비도 설렁설렁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계속하면서 아이들끼리 상의도 하고 이것저것 맞춰보면서 춤을 완성하게 되었다. 예선을 치루기 며칠 전부터는 선배님들과 같이 준비했었는데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습도 더 열심히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예선 당일에는 다른 팀들 준비한 것도 보면서 재미있기도 했고, 우리도 저렇게 뭘가 더 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어색하고 힘들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연습한 것만큼은 다 보여줘야 후회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열심히 연습했고,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미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본선에서는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 2학년 유아문학수업은...

요즘 이론보다 많아진 실기로 인해 바빠진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은 다른 과목들에도 열심히 집중하며 수업을 듣고 있지만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실기가 중심이 된 유아



문학수업에 가장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영아용, 유아용 그림책들을 보며 즐거움과, 놀라움, 그리고 아이들의 동심을 엿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수님은 그림책을 보여줄 때에도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어떤 눈높이, 어떤

자세, 어떤 강약 등을 알려주십니다. 학생들은 유아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오는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유아에게 책을 읽어준 동영상을 보며 유아의 반응과 교사로서 고쳐할 점들을 교수님과 이야기하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과제가 너무 많아 지치기도 하지만 이런 즐거운 수업만 한다면 정말 즐거울 것 이라며 1학년 때 그 지겨운 이론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다며, 2학년이 되어 이런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즐겁고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 형님반이 된 기분

2011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 풋풋함을 받고 있던 10학년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풋풋함을 벗어나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11학년 동생

반을 갖게 되었는데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고 후배를 만나 선배대접을 받으니 어색하기도하고, 내가 진짜 2학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형님반이 되어서 좀 더 의젓해지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로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 년 동안 유아교육에 관한 지식들도 많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뿌듯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짐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 더 어렵고 방대해질 지식들을 습득해 가야 하는 것도 매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1,2,3학년들이 친해질 계기가 별로 생기지 않아 후배들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 인사하기도 받기도 힘든 거 같아 아쉽습니다. 아직 안 친해져서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앞으로는 서로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Our Story



### 유아교육과 대면식

2011년 3월 16일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 사회체육관 강당에서 대면식을 가졌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해 하며 하나둘 체육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붙어있는 종이에

자신이 속한 팀대로 일렬로 줄을 서면서 대면식은 막을 올렸습니다. 대면식은 작은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미리 짜놓은 10팀이 2팀씩 피구, 농구, 몸으로 말해요, 공 빨리 넘기기, 손병호 게임을 하였습니다. 각 학년이 잘 어우러져서 . 다들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피구에서는 공이 안보일정도로 힘껏 던져 상대팀을 맞추고, 농구에서는 공을 높이 던지고 골이 들어갈 때의 표정 등 각자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 빨리 넘기기 게임은 새로우면서 재미있었는데 모르는 사이에도



공을 대면 빨리 전달하려다 보니 어색한 표정과 동작에서 다들 웃으며 빨리 진행하였습니다. 또, 경기가 끝난 후 개회 전 미리 나누어준 추천포를 추천하여 상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보통 대면식을 하면 친목도모를 핑계 삼아 과음을 하고 그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유아교육과에서는 건전한 대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후배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해서 좋았습니다. 대면식을 끝내고 학교 앞 식당으로 이동하여 모두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으며 학교생활이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체육대회형식으로 대면식을 하다 보니 좀 추운 날씨긴 했지만 활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새로웠었고 여름에 있을 본 학교 체육대회도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 선배님 궁금해요

2011학년도 신입생인 11학번 새내기들은 처음 접해보는 대학생활에 대해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이 시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새내기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모아 봤습니다. 선배님 대답해 주실꺼~죠?!

1. 선배님들은 학점관리와 영어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2.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유아교육과 취업할 때 자격증은 많이 필요한가요?
  4. 취업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5. 선배님들은 MT때 무얼하고 노셨나요?
  6. 주로 공강시간에 뭐하시나요?
7. 선배님들은 식사는 주로 학생식당에서 하시나요?
  8. 레포트 잘 쓰는 법 있나요?
  9. 대학교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10. 선배님들은 시험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11. 선배님들은 과팅 하셨나요?
  12. 우송대학교는 조기졸업은 가능한가요?
13. 일정 토익점수를 넘어야 졸업할 수 있나요?
  14. 부전공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15. 시간표를 마음대로 짤 수 없나요?
  16. 항상 공강시간이 긴가요?
  17. 제일 재미있는 강의시간은 무엇인가요?
18. 우리학교에서 제일 재미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19. 선배님들은 해외 연수 경험이 있으신가요?
  20. 체육대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21. 축제 때는 뭘하나요?
    22. 구연동화도 배우나요?
23. 축제 때 공연 준비는 과마다 다 하는 건가요?
  24. 체육 대회때 무슨 과랑 같이 하나요?
  25. 구연대회 하면 동기들 앞에서 하나요?
  26. 동기들 앞에서 동요 불러야 하나요?
  27. 교육학개론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28. 동아리 활동할 때 과동아리랑 학교 동아리 다 할 수 있나요?
  29. 실습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30. 실습 나가서 어떤 일을 하나요?
  31. 어떻게 하면 선배님들과 친해 질 수 있나요?
  32. 우송대 근처 맛집 뭐 있나요?
33. 유아교육과 에서는 손재주가 좋아야 하나요?
34. 임용고시 준비는 언제쯤부터 하나요?

다음호에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려주세요~

# 유아 상식

## 잘못 알고있는 유아 상식!

■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크다.

우유에는 뼈의 성장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적당량을 마시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단백질과 칼슘 외에 인 등의 다른 무기 물질과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뼈가 잘 자라고 잘 크게 된다. 따라서 키 크는 데 좋다고 우유를 필요 이상 마시면 오히려 다른 음식을 먹는 데 지장을 주어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돌이 지난 아이의 경우 하루에 500~700cc 남짓이면 된다.

■ 어리니까 잘 모를 거야.

질문의 꼬리를 이어 또 질문을 하는 아이들. 번거롭고 귀찮고 어리니까 잘 못 알아들을 거야라는 마음에 “지금 바쁘니까, 이따 말해 줄게”, “크면 알게 돼”라고 말하거나 대충대충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일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아이들은 모두 알아듣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상상한다. 또한 엄마가 나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정서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 숨은 그림 찾기



<찾을 그림>

## 4단 만화



<따스한 봄>

은동모자, 국자, 알파벳Y, 촛불, 성냥개비, 티스푼

By. 도바기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 박민정 \* 안선경 \* 이예지
- \* 김연수 \* 문진아 \* 송하나 \* 박혜령
- \* 김민아 \* 이은정 \* 조아름